



2nd Week February 2025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28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세계, 청년, 미래, 오영훈, 삭감
경제·관광	감귤, 여행, 청년, 농가, 재배
지역·사회	어선(해상, 전복), 대통령(탄핵), 지하수, 꽃지알, 한라산

※ 분석 기간 : 25.02.13.~25.02.19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0-12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환경의 날 제주 개최 준비 - 북·미 정상회담 제주 유치 제안 - APEC 국제회의 제주 지원 계획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 청년 주거·이동권 보장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 그린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노선 확대를 대한항공에 요청 - 민생경제 활성화 조기 추경 편성 - 제주 관광 위기 대응 전략
	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10% 효율화 계획 논란 - 차고지증명제 완화안 갈등 - 공공기관 지방채 한계 대응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2~14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감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대체 작물 개발 - 감귤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객 감소와 경제적 영향 - 열린 관광 페스타 추진 - 제주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모집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 - 청년 농업인 양성 - 제주 청년 경제 활성화 정책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 - 농가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 - 다문화 가정 농가 지원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대체 작물 재배 확대 - 농업 기계화 및 스마트 팜 도입 - 친환경 농업 및 지속가능한 재배 방식 확대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15~16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어선(해상,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사고 - 어선 사고 잇따른 발생 -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대통령(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심판 변론 진행 - 탄핵 영향과 국정 운영 - 국민 여론과 탄핵 찬반 의견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논란 - 제주 지하수 고갈 우려 - 지하수 관리 정책 논란
	곶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곶자왈 보존과 개발 갈등 - 곶자왈 훼손 실태와 대책 -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재조명
	한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 - 한라산 탐방객 증가와 과제 - 한라산 생태계 보호 필요성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목차

구분	국가별 정책동향 제목	
중국	하이난 자유무역항 핵심 구역, '여섯 개 도시' 구축 추진	17
	중국 신통원, AI 모델 DeepSeek 국산화 적합성 테스트 착수	17
	전국 '저공항공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 본격 가동	17
	2025년 상하이, 소비 촉진 6대 특별 정책 추진	18
	중국 첫 '온라인 화물차 운영 서비스 표준' 시행	18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노동 기반 구호사업에 50억 위안 투자	19
	중국 첫 대형 드론 기반 저공 물류 노선 개통	19
	베이징 세관, 무역 활성화 위한 신규 정책 발표	19
	중국, 사업자 등록 문서 관리 강화 위한 새 규정 도입	20
	충칭, 스마트 전기차 산업 육성 가속화	20
	중국, 신형 에너지 저장 산업 고도화 위한 8개 부처 공동 정책 발표	20
일본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호쿠리쿠 전력과 협약 체결...탈탄소 추진	21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그린 수소' 실증 설비 완공	21
	오카야마시, 지역 창업 지원 강화...도쿄 이탈 방지	22
	홋카이도 중소기업, 우주 산업 진출 확대...로켓 발사대 개발	22
	도쿄도-후쿠시마현, 그린 수소 활용 촉진 협약 체결	22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노동국과 협약 체결...서비스업 인력 확보 추진	23
	아키타현 미사토마치, JAL과 협력...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사업 참여	23
	건설·농업 분야 여성 참여 확대...지자체 지원 강화	24
	후쿠시마현, IH·닛키 등과 협력하여 그린 수소 보급 확대	24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택시 부족 해결 위한 임시 증차 허용	24
재생에너지 투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용 증가...정부 지원 절실	25	
베트남	베트남,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글로벌 무역 긴장 속 협력 강화	25
	베트남, 83억 달러 규모 철도 사업에 중국 차관 활용 계획	25
싱가포르	싱가포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회	26
	싱가포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목표	26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B2B 협력 강화	26
	말레이시아 부총리, 중국 딥시크 모델 도입으로 AI 산업 발전 가속화 전망	27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팜유 수출 강화 및 신규 시장 개척	27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 예산 900억 루피아 삭감	28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경제 외 분야로 협력 확대	28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위한 신규 전력공급계획 출범	28
필리핀	필리핀과 라트비아, 해양 협력 강화 위한 신규 협정 체결	29
	필리핀, 지방정부 디지털화 가속	29
캄보디아	캄보디아와 필리핀, 농업 협력 강화 위한 MoU 체결	29
	캄보디아, 한국 투자 유치 위한 전기차 기술 인력 양성 협력 강화	30
태국	태국, AI 인프라 확장 위해 700억 바트 투자 계획	30
ASEAN	아세안과 중국,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30

○ 중국

- ✓ 하이커우는 자유 개방, 산업 혁신, 소비 활성화, 친환경, 주거 편의, 문화 전승을 목표로 하이난성 보세구역 운영 강화 방안 관련 추진 정책 수립
- ✓ 중국정보통신연구원이 인공지능 모델 DeepSeek의 국산화 적합성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며,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협업 효과를 향상 방안 추진
- ✓ 중국 저공 경제 연맹이 전국 단위 저공항공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역 간 저공 교통망 표준화 및 지상 비행 서비스 시설 정비를 통한 경제 발전 목표 설정
- ✓ 상하이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6대 특별 정책을 발표하며, 가전 및 자동차 교체 지원, 실버 소비 확대, 문화 관광 스포츠 소비 증진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 계획 마련
- ✓ 시안시는 온라인 화물차 운영 서비스 표준을 시행하며, 플랫폼과 운전자 및 화주 간 책임 명확화, 불법 운송 방지, 운전자 권익 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 시스템 구축 추진
-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노동 기반 구호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50억 위안을 투자하며, 공공 인프라 건설 참여 주민들에게 임금 지급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촉진 목표 설정
- ✓ 대형 무인기 FP-98이 울림~시안 간 저공 물류 노선을 성공적으로 비행하며, 기존 육상 운송 대비 70% 이상 시간 단축 효과를 보이며 중국 서부 지역 물류 네트워크 확장 추진
- ✓ 베이징 세관이 AI, 바이오헬스, 보세물류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무역 안정 및 품질 향상 조치를 발표하며, 무역 환경 개선 및 기업 운영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 추진
- ✓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기록보관청이 사업자 등록 문서 관리 조례를 발표하며, 전자 문서 관리 및 기업 간 이전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 경영 환경 개선 계획 수립

- ✓ 충청은 스마트 네트워크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반 차량 기술 개발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 확대, 전기차 생산량 증가 및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
-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가 신형 에너지 저장 제조업 고도화 발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리튬 배터리 신기술 개발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 일본

- ✓ 도야마현 다카오카시는 호쿠리쿠 전력 및 송배전과 협약을 체결하며, 탈탄소 추진 및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활성화 정책 시행 계획 수립
- ✓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린 수소 제조 설비를 완공하며, 지역 내 공장 및 공공시설에 공급하여 일본 내 수소 에너지 공급망 구축 추진
- ✓ 오카야마시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창업가 육성을 본격화하며,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강화, 지속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 구축 추진
- ✓ 홋카이도 중소기업들이 우주 산업 진출을 확대하며, 로켓 부품 및 발사장 설비 개발에 투자하고 민간 우주 기업과 협력하여 기술 개발 추진
- ✓ 도쿄도와 후쿠시마현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협약을 체결하며, 교통 및 산업 부문에서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추진
- ✓ 시즈오카현 시모다시는 노동국과 협약을 체결하여 관광 서비스업의 인력 확보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 설정
- ✓ 아키타현 미사토마치는 일본항공과 협력하여 지속가능 항공 연료 보급 사업에 참여하며, 폐식용유 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항공 연료로 활용방안 추진

- ✓ 건설 및 농업 분야 여성 인력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지원이 강화되며, 여성 전용 휴게 공간 마련, 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무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 후쿠시마현이 IHI 및 넷키홀딩스와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보급 확대 목표 설정
- ✓ 국토교통성이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증차를 허용하며, 라이드셰어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교통 수요 증가 대응 계획 추진
-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일본 정부는 기업 투자 리스크 완화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지원 정책을 도입 방안 추진

○ 베트남

- ✓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및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며, 농업 협력 강화 및 무역 확대를 위한 전략적 경제 협력 관계 구축 목표 설정
- ✓ 베트남 교통부는 83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사업에 중국 차관을 활용하며, 노후 철도 시스템 현대화 및 국가 경제 발전 목표 추진

○ 싱가포르

- ✓ 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4.4% 성장하여 기존 전망치를 초과하며, 도매무역, 금융, 제조업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제 성장 모델 구축 추진
- ✓ 싱가포르 기후변화사무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며, 청정에너지 수입, 원자력 에너지 도입, 탄소 포집 기술 활용 방안 추진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기업 협력을 강화하며, 금융, 통신, 에너지,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 목표 설정
- ✓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 도입을 통해 AI 산업 발전 촉진 및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대를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정책 추진
- ✓ 말레이시아는 중남아시아 5개국에 팜유 수출을 확대하며, 주요 팜유 공급국으로서의 입지 강화 및 바이오매스 폐기물 활용 방안 추진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창조경제부 예산을 30% 삭감하며,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중심으로 예산 조정 및 재정 효율화 목표 설정
-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국방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디지털 혁신 및 산업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협력 확대 추진
- ✓ 인도네시아 정부는 신규 전력공급계획을 발표하며, 2034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 및 가스 발전 시설 확충 계획 추진

○ 필리핀

- ✓ 필리핀과 라트비아는 국제 해양 표준 준수를 위한 해양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필리핀 선원의 국제적 고용 기회 확대 목표 설정
- ✓ 필리핀 정부는 지방정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행정 투명성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계획 수립

○ 캄보디아

- ✓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농산물 무역 확대 및 식량 안보 증진 목표 설정

- ✓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과 협력하여 전기차 기술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투자 유치 및 산업 성장 촉진 목표 설정

○ 태국

- ✓ 태국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700억 바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데이터센터 확장 및 AI 기반 경제 육성 목표 설정

○ ASEAN

- ✓ 아세안과 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재확인하며, 무역, 투자, 녹색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확대 목표 설정.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5년 2월 13일~2월 19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63건임
 - 정치·행정 분야 359건, 경제·관광 185건, 지역·사회 319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세계, 청년, 미래, 오염훈, 삭감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세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환경의 날 제주 개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NEP와 환경부, 제주 해녀문화·환경 정책 현장 점검 · 2025년 세계환경의 날 행사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종식" 관련 프로그램 구체화. 제주 해녀협회와 협력해 해양 보호 메시지 전달 계획 · 제주도, 재활용시설 및 친환경 정책 홍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리더십 강화 목표 - 북·미 정상회담 제주 유치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회 의장, 세계평화외교포럼 지정 20주년 기념으로 북·미 회담 개최 제안 · 과거 한·소, 한·미 정상회담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제주의 평화 외교적 가치 재조명 · 4자 회담(한·미·북·중) 유치를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기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국제회의 제주 지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 및 장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회의장·숙소·교통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상권 연계 투어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 극대화 방안 추진
정치·행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상담 인원 1,500명→2,500명으로 증원 및 상담사 7명 배치 · 미취업 청년 10~60만원, 취업 청년 5~25만원 지원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접근성 강화로 청년 정책 혜택 확대 -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센터 10개소 운영 및 농촌 현장 화장실 50개소 설치 지원 · 디지털·AI 교육 과정 신설로 청년 창업 및 취업 역량 강화 · 청년 농업인 대상 건강검진비·돌봄시설 지원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 - 청년 주거·이동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디심팡(휴식공간) 4곳 확대 및 서귀포 서부권 신설 · 택배기사·생활지원사 등 실외 근무 청년의 휴식 환경 개선 · 만족도 91.4점 기록으로 청년 편의시설 운영 효과성 입증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 신산업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탄소중립·식품 분야 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2035년 대전환 계획 · 제조업 비중 10% 달성 목표 시점을 2030년→2035년으로 조정. 전문가 태스크포스 구성 · 우주산업 기지 조성 및 UAM(도심항공교통) 도입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그린수소 경제 생태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100수소시범단지 및 민간 충전소 구축을 통한 수소버스·청소차 확대 · 2023년 21대 수소버스에서 2024년 41대로 증가 예정 · 생산단가 보전 지원(1kg당 4,800원)으로 그린수소 시장 경쟁력 강화 -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및 법적 절차 진행 ·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도민 의견 수렴 및 갈등 최소화 방안 모색 · 제2공항 건설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병행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노선 확대를 대한항공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 10.7% 감소에 따른 제주경제 회복을 위한 증편·신규 노선 건의 · 인천~제주 노선 밀집 해소 및 중국·일본 신규 취항 검토 협력 ·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나무심기 사업 등 사회적 책임 활동 제안 - 민생경제 활성화 조기 추경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세출예산 10% 일괄 삭감 방침 발표 · 도의회 반발에도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 강조 · 민간보조금·위탁사업 중심 재원 확보로 도민 체감 지원책 마련 - 제주 관광 위기 대응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편 감소·비상계엄 여파로 인한 관광 침체 타개 방안 모색 · 대한항공·한국공항공과의 협업을 통한 화물 노선 다변화 추진 · 해외 마케팅 강화 및 축제·이벤트 개최로 관광객 유치 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삭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출예산 10% 효율화 계획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보조금·위탁사업 삭감을 통한 4월 추경 재원 마련 · 도의회, "민생예산까지 침해"라며 반발. 읍면동 예산 20~30% 추가 삭감 우려 · 부서별 실적 경쟁 유발로 일부 부서 33% 초과 삭감 계획 제출 - 차고지증명제 완화안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원 3개 조례안 발의로 완화 수준 놓고 여야 참여한 대립 · 김황국 의원안(대형차만 증명) vs 현지홍 의원안(다자녀·부속도서 제외) · 도민 사회 혼선 우려로 임시회 내 처리 불발 가능성 높음 - 공공기관 지방채 한계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2,200억원 지방채 발행 후 추가 발행 어려움에 따른 예산 구조조정 · 순세계잉여금·이월금 등 가용 재원 확보에 집중 · 민간단체 "아랫돌 빼 윗돌 괴기"식 삭감 관행 중단 요구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감귤**, **여행**, **청년**, **농가**, **재배**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p>경제·관광</p>	<p>감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대체 작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하우스를 활용한 저수고 바나나 재배 기술 개발 추진 · 감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확보를 위한 바나나 품종 육성 및 실용화 · 감귤 재배 농가의 시설 투자비 절감 및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농산물 온라인 거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감귤 및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증가 · 온라인 유통 확대를 통한 농가 수취가격 상승 및 유통비 절감 · 감귤 외 월동무, 양배추, 당근 등 품목 다양화 추진 -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감귤원 토양피복 지원사업 추진, 감귤 당도 향상 목적 · 감귤 농가 대상 간벌 사업 확대, 고품질 감귤 생산 지원 · 감귤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 추진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객 감소와 경제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제주 국내선 항공편 공급 좌석 지속 감소 ·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감소, 숙박·음식업 등 관광업 침체 · 제주도정, 국내선 항공편 증편 요청 및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 열린 관광 페스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대상 무장애 관광 행사 개최 · 열린 관광 콘서트, 취약계층 초청 여행, 기업·기관 프로모션 운영 · 참여 기업 및 기관을 모집하여 사회공헌 연계한 관광 활성화 추진 - 제주 전담 여행사 및 크리에이터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기반 여행 서비스 개발 및 관광상품 운영 전문가 모집 · 카름스테이 등 로컬 관광 활성화 위한 전담 여행사 운영 계획 · 제주관광공사, 로컬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력 강화
경제·관광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이어드림 지원사업 대상 2500명으로 확대 · 취업 및 미취업 청년을 위한 맞춤형 정책 연계 및 지원금 지급 · 청년 정책 상담소 운영 확대, 접근성 강화 - 청년 농업인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농협, 2025년 청년 농업인 아카데미 운영, 100시간 교육 과정 제공 · 스마트 농업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재배 기술 교육 확대 · 청년 창농 지원을 위한 후속 정책 연계 및 사업 지원 - 제주 청년 경제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상공회의소 청년부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추진 · 제주 청년 창업·벤처 지원 정책 발표 및 자금 지원 확대 · 청년 취업 및 창업 인프라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농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 소득 안정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월동무, 양배추 등 제주 주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증가 ·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및 유통 혁신 추진 · 제주농협, 지역 농가 대상 금융 지원 및 농업 기술 지원 강화 - 농가를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기술 도입, 관수 자동화 시스템 구축 ·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감귤 품질 향상 및 생산성 증가 기대 · 농업 기계화 및 자동화 기술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가정 농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 다문화 가정 대상 모국 방문 지원 사업 추진 · 농촌 정착을 위한 다문화 가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농가의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 지속 확대
재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대체 작물 재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 위해 감귤하우스를 활용한 바나나 재배 추진 · 감귤 농가 대상 바나나 재배 기술 보급 및 실용화 연구 진행 · 감귤 농가의 새로운 수익 창출 기대, 판로 확보 과제 - 농업 기계화 및 스마트 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늘·양파 재배 기계화 지원사업 추진, 농업 생산성 향상 목적 · 농업 노동력 절감 및 생산 비용 절감 기대 · 데이터 기반 재배 기술 적용, 농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업 및 지속가능한 재배 방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농가 대상 토양피복 지원사업 확대, 감귤 품질 개선 목표 · 유기농 및 친환경 농산물 재배 확대,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 구축 · 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어선(해상, 전복), 대통령(탄핵), 지하수, 꽃자왈, 한라산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어선(해상, 전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해상 어선 전복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해상에서 2066재성호가 전복되어 승선원 10명 중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실종된 상황 · 해경은 함선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실종자 수색을 진행 중이며, 기상 악화로 인해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 어선 사고 잇따른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개월간 제주 해상에서 대형 어선 사고가 3건 발생, 다수의 사망자와 실종자 발생 · 어선 전복 원인은 기상 악화, 조업 중 사고, 선박 노후화 등으로 분석되며, 정부와 제주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해양안전 특별경계 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 해경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해 3월까지 해양안전 특별경계를 발령, 어선 조업 규정 준수 강화 · 원거리 조업 선박들의 안전 점검과 함께 선박 내 안전 장비 확인 및 구명조끼 착용 점검 등이 포함된 조치 시행
	대통령 (탄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핵심판 변론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진행 중이며,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법적 공방 지속 · 국회 측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하며 탄핵 필요성을 주장, 대통령 측은 모든 소추 사유를 부인 - 탄핵 영향과 국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국정 공백이 우려되며, 정부 운영 및 경제 정책에 대한 혼란 예상 · 여야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지형 변화가 클 것으로 전망 - 국민 여론과 탄핵 찬반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 여론은 탄핵 찬반으로 갈리며, 국회에서 진행된 소추 사유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 지지층과 반대층 간의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향후 대선 및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실정
	지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 취수량을 100t에서 150t으로 증산하려는 계획 추진 중 ·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의 공공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성명 발표 - 제주 지하수 고갈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서부 지역의 지하수 취수량이 지속가능 이용량을 초과하여, 지하수 고갈 및 수질 오염 문제 발생 가능 · 농업용수의 과다 사용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며, 대체 수자원 개발 및 빗물 활용 확대 필요성 대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수 관리 정책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 정책이 공공재 보호와 기업 이윤 추구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 제주특별법에 따라 민간 기업의 지하수 이용 연장이 금지되었으나, 법적 다툼으로 논란 지속
	곶자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곶자왈 보존과 개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곶자왈 지역의 환경 보호와 개발 요구가 충돌하며 도민사회에서 논쟁이 발생 ·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가 개발 제한 및 보호구역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필요성도 제기 - 곶자왈 훼손 실태와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0% 이상의 곶자왈이 개발로 인해 사라졌으며, 남은 지역도 추가적인 개발 위협에 직면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 등 여러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곶자왈 보존을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재조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곶자왈은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며, 제주 지하수의 주요 함양지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평가 · 환경보호를 위해 곶자왈 보존을 강조하는 전시회 및 연구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환경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실정
	한라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탐방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국립공원에서 3월부터 12월까지 탐방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어승생악 야간 특화프로그램, 깃대종 홍보프로그램, 탐방로 해설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체험 활동 제공 - 한라산 탐방객 증가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탐방객 수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2023년 대비 탐방객 0.8% 증가 · 코로나19 이후 탐방객이 회복세를 보였으나, 10년 전과 비교하면 20% 이상 감소한 상황 - 한라산 생태계 보호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라산 생태계가 기후변화 및 탐방객 증가로 인해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구상나무 고사 현상과 서식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 및 복원 대책 필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 하이난 자유무역항 핵심 구역, '여섯 개 도시' 구축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이커우는 자유 개방, 산업 혁신, 소비 활성화, 친환경, 주거 편의, 문화 전승을 목표로 '여섯 개 도시' 구축 계획을 발표. 전반적 보세구역 운영(封关运作) 강화를 위해 세부 방안 마련 - 국제 경제 규칙인 RCEP, CPTPP, DEPA 적용을 확대하여 글로벌 자유무역 연결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할 계획. 광둥·홍콩·마카오·장강삼각주·징진지 지역과 협력을 심화하며, 자유무역구 간 무역·금융·교육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 과학·기술·교육·산업 연계를 강화하여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과 대학 간 협력을 확대할 방침. 바이오 의약, 디지털 경제, 반도체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투자 유치 확대 및 경쟁력 있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 목표로 설정
	<p>○ 중국 신통원, AI 모델 DeepSeek 국산화 적합성 테스트 착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信通院)이 인공지능 모델 DeepSeek의 국산화 적합성 테스트를 공식적으로 시작. AI 소프트웨어·하드웨어의 협업 효과를 향상시키고, AI 산업의 국산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로 설정 - 이번 테스트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에서의 모델 성능과 배포 적합성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둠. 반도체, 서버, 개발 프레임워크, 클러스터 및 인공지능 컴퓨팅 시설 등 AI 관련 전반적인 하드웨어와 시스템이 평가 대상에 포함 - 테스트 과정에서 적합성 비용, 기능 완전성, 최적화 효과 및 성능 지표 등 주요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이 진행될 예정. AI 산업 내 국산화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
	<p>○ 전국 '저공항공 교통망' 구축 프로젝트 본격 가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저공 경제 연맹이 전국 단위 '저공항공 교통망' 구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 지역 간 저공 교통망 표준화 및 지상 비행 서비스 시설 준비를 통해 저공 경제 발전을 가속화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공 항공의 기상 조건이 복잡하여 공역 관리 규칙 및 새로운 운영 기준 수립이 필요.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휘 네트워크 및 지상 서비스 플랫폼 구축이 핵심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 진행 - 저공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공역 개방, 인프라 건설, 정책 조정 등이 강조. 전문가들은 저공 경제가 국가 전략 차원에서 산업 발전을 주도할 핵심 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하며,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
	<p>○ 2025년 상하이, 소비 촉진 6대 특별 정책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이시는 소비 활성화를 위한 ‘6대 특별 정책’을 발표하고, 가전·자동차 교체 지원, 실버 소비 확대, 문화·관광·스포츠 소비 증진 등의 다양한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할 예정 - 신유형 소비를 촉진하고, 도시 야간 경제 활성화, 주요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됨. 2025년까지 상하이를 국제적인 소비 중심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제6회 55 쇼핑 페스티벌’, ‘상하이 국제 소비 시즌’, ‘상하이 수입박람회 소비 축제’ 등 다양한 소비 행사 개최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소비 시장 확대 및 경제 성장 촉진을 도모할 계획
	<p>○ 중국 첫 ‘온라인 화물차 운영 서비스 표준’ 시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안시에서 중국 최초로 ‘온라인 화물차 운영 서비스 표준’이 시행됨. 디지털 물류와 운송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플랫폼, 운전자, 화주 간 책임과 안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 기준 마련 - 이번 표준은 불법 화물 운송 방지, 운전자 권익 보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감독 및 평가 시스템 구축 중점 추진. 특히, 플랫폼의 저가 경쟁 방지와 운전자 안전 보장을 위한 조항 포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 최초로 ‘운전자 자격 동적 검증’ 및 ‘화주 권익 보호 리스트’ 등의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여 업계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 정부 기관과 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
	<p>○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노동 기반 구호사업에 50억 위안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노동 기반 구호사업(以工代赈) 프로젝트를 위해 50억 위안을 투자하여 전국 1,008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 이를 통해 12.3만 명의 저소득층 및 농촌 빈곤층을 고용할 예정 - 해당 사업을 통해 공공 인프라 건설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17.1억 위안의 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도로·농업 인프라·용수 공급망 등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동시에 진행 -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농촌 주거 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정
	<p>○ 중국 첫 대형 드론 기반 저공 물류 노선 개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무인기 FP-98 ‘라이온’ 이 울림~시안 간 저공 물류 노선을 성공적으로 비행하며 중국 최초의 대형 드론 기반 저공 물류 서비스가 개통 - 540km의 노선을 2시간 47분 만에 비행 완료하며, 기존 육상 운송 대비 70% 이상의 시간 단축 효과를 보임. 향후 정기 노선 운영을 통해 물류 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 - 자동 장애물 회피 시스템 및 야간 비행 기능을 갖춘 최신 스마트 드론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향후 은천, 란저우, 신장 등 서부 지역으로 물류 네트워크를 확장할 예정
	<p>○ 베이징 세관, 무역 활성화 위한 신규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이징 세관이 AI, 바이오헬스, 보세물류 등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무역 안정 및 품질 향상 조치’ 를 발표하며 글로벌 무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 - 보세구역 확대, 항공 물류 혁신, 무역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정책을 통해 무역 환경 개선 및 기업 운영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수요 충족을 위한 수입 규제 완화 및 관광·면세 쇼핑 촉진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됨
	<p>○ 중국, 사업자 등록 문서 관리 강화 위한 새 규정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장감독관리총국과 국가기록보관청이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 문서 관리 조례’를 발표하며, 등록 문서의 표준화 및 보관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 - 전자 문서 관리 및 기업 간 이전 절차 간소화가 핵심 내용으로 포함되었으며, 데이터 보호 및 보안 강화를 통해 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할 계획 - 문서 조회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이 보다 편리하게 사업 운영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등록 정보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
	<p>○ 충칭, 스마트 전기차 산업 육성 가속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칭이 스마트 네트워크 전기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AI 기반 차량 기술 및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확대하는 계획 발표 - 2024년 전기차 생산량 95만 대에서 2025년 130만 대로 증가할 전망이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가 주요 추진 과제 - 초고속 충전소 및 AI 기반 도로망을 구축하여 전기차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자동차 산업을 신기술 중심으로 전환하여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
	<p>○ 중국, 신형 에너지 저장 산업 고도화 위한 8개 부처 공동 정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8개 부처가 ‘신형 에너지 저장 제조업 고도화 발전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리튬 배터리 등 신기술 개발 및 업계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 - 2027년까지 신형 에너지 저장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고급 제품 공급을 확대하며,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p>산업 체계를 구축할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화된 신형 에너지 저장 기술 발전, 효율적인 에너지 변환 및 안전 기술 연구 강화, 글로벌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등의 전략이 포함됨
일본	<p>○ 도야마현 다카오카시, 호쿠리쿠 전력과 협약 체결·탈탄소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야마현 다카오카시는 호쿠리쿠 전력 및 호쿠리쿠 전력 송배전과 지역 활성화 및 탈탄소 추진을 위한 포괄적 협약을 체결. 협력 분야는 환경·에너지, 안전한 도시 조성, 육아 지원, 산업 진흥 등 6개 분야로 구성 - 기존에도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이 지속되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시대 변화에 맞춘 지속 가능한 생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추진. 지진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주 지원도 협력 계획에 포함 - 다카오카시 시장은 탈탄소 추진과 일하는 방식 개혁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도시 조성 의지를 밝힘. 호쿠리쿠 전력은 지역 경제 및 에너지 공급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 협력을 진행할 계획 <p>○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 ‘그린 수소’ 실증 설비 완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사 스파크스 그룹의 자회사인 스파크스 그린에너지&테크놀로지가 홋카이도 도마코마이시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 수소’ 제조 설비를 완공. 3월부터 연간 최대 100톤을 생산하고 지역 내 공장 및 공공시설에 공급할 계획 - 환경성의 위탁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며, 히타치 제작소, 도요타 자동차 홋카이도, AGC 계열 홋카이도 소다, 미쓰이 스미토모 신탁은행 등이 프로젝트에 참여. 일본 내 수소 에너지 공급망 구축이 목표 - 스파크스 그룹 대표는 “홋카이도를 그린 수소 순환 모델로 세계에 알리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으며, 향후 국내외 수소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검토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오카야마시, 지역 창업 지원 강화·도쿄 이탈 방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카야마시의 창업 지원 거점 ‘모모타로 스타트업 카페(ももス夕)’에서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 내 창업가 육성을 본격화. 2024년부터 시작된 창업 교육 과정에 2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3명이 법인 설립 완료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 강화. 교육 프로그램은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 사업 모델 개발, 프레젠테이션 기술 향상 등으로 구성되며, 참가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지속적인 창업 지원도 제공 - 창업 후 지속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재무·전략 수립 강좌를 추가 개설. 기존 참가자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 확대를 추진하며, 2025년에도 신규 창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
	<p>○ 홋카이도 중소기업, 우주 산업 진출 확대·로켓 발사대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홋카이도 내 중소기업들이 우주 산업 진출을 확대하며 로켓 부품 및 발사장 설비 개발에 도전. 기존 사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래 산업 개척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진행 - 구시로시의 ‘구시로 제작소’는 이동식 로켓 발사대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 실증 실험을 통해 상용화를 검토. 또한, 민간 우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주 관련 기술 개발을 추진 - 아카비라시의 ‘우에마쓰 전기’는 우주 실험 시설 ‘COSMOTORRE’를 운영하며, 민간·정부·대학 연구팀의 실험 공간을 제공. JAXA 및 다양한 우주 기업들이 해당 시설을 활용하며, 일본 우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
	<p>○ 도쿄도-후쿠시마현, 그린 수소 활용 촉진 협약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쿄도와 후쿠시마현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의 보급 확대를 위해 협력 협약을 체결. 후쿠시마현은 수소 공급을, 도쿄도는 교통 및 산업 부문에서의 활용을 추진하며, 수소 사회 실현을 목표로 설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현은 대규모 수소 제조·연구 거점인 ‘후쿠시마 수소 에너지 연구 필드(FH2R)’ 를 통해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및 관련 기업 유치를 추진 - 도쿄도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소를 대중교통과 산업 분야에서 적극 활용하며, 수소 충전소 확대 및 공급망 정비를 지원할 계획. 양측은 수소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에서도 협력을 지속할 예정
	<p>○ 시즈오카현 시모다시, 노동국과 협약 체결·서비스업 인력 확보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즈오카현 시모다시는 시즈오카 노동국과 협약을 체결하고, 숙박·음식업 등 관광 서비스업의 인력 확보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할 계획 - 시청 및 하로워크 직원 대상 고용 관련 제도 교육을 실시하며, 이주 촉진 및 구인·구직 매칭 지원을 확대할 예정. 기업과 협력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함 - 202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과 정착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
	<p>○ 아키타현 미사토마치, JAL과 협력·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사업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키타현 미사토마치는 일본항공(JAL)과 협력하여 지속가능 항공 연료(SAF) 보급 사업에 참여. 지역 내에서 폐식용유를 수거하여 SAF 원료로 활용하는 순환 시스템 구축 추진 - 4월부터 지역 내 슈퍼마켓 2곳에 폐식용유 회수 박스를 설치하여 가정에서 나온 폐식용유를 수거하고, 이를 JAL의 SAF 생산 공정에 활용. 수거된 폐식용유는 코스모 석유 정제소에서 SAF로 정제될 예정 - SAF는 기존 항공 연료 대비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JAL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역과 협력을 확대할 방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p>○ 건설·농업 분야 여성 참여 확대··지자체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내 건설업과 농업 분야에서 여성 인력의 참여 확대를 위한 지자체 지원이 강화됨. 여성 전용 휴게 공간·화장실 설치, 육체적 부담을 줄이는 보조 장비 도입 등의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여성들이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 일부 지자체는 ‘건설 디렉터’ 등 여성 친화적인 직군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현장 업무와 행정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근무 방식 개선 정책을 추진 중
	<p>○ 후쿠시마현, IHI·닛키 등과 협력하여 그린 수소 보급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쿠시마현이 IHI, 닛키홀딩스 등과 협력하여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 및 활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 - 후쿠시마현 소마시에 위치한 ‘IHI 그린 에너지 센터’에서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암모니아 제조 실증 실험을 진행하며, 이를 발전소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 후쿠시마현은 2025년부터 그린 수소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며, 지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도쿄도 및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
	<p>○ 도쿄·오사카 등 대도시, 택시 부족 해결 위한 임시 증차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성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대도시에서 한시적으로 택시 증차를 허용하는 정책을 발표. 라이드셰어 도입이 지연되는 가운데, 교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 기존의 택시 규제 지역에서 일부 미운행 차량을 다른 회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 - 2026년 3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국토교통성은 향후 택시 공급 조정 정책을 재검토하여 장기적인 교통 서비스 안정화를 목표로 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투자,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비용 증가·정부 지원 절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투자 결정에 부담이 가중 - 일본 정부는 2025년부터 해상 풍력 발전 입찰에서 인플레이션 비용을 전력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완화할 계획 - 태양광 발전의 경우,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붕 설치형 태양광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의 지원책이 향후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글로벌 무역 긴장 속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의지를 밝히며, 미국과의 농업 협력을 강화할 계획임.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 긴장 고조 속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전략적 접근 - 응우옌 흥 디엔 베트남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베트남 미국 대사와의 회담에서 공급망 다각화 및 농산물 시장 확대를 논의하며, 미국이 베트남산 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 - 베트남은 현재 미국의 아홉 번째 농산물 수출 시장이며, 미국산 육류, 과일, 옥수수, 유제품 등의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진행하고 있음.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 ○ 베트남, 83억 달러 규모 철도 사업에 중국 차관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교통부는 83억 달러 규모의 철도 건설 사업에 중국 정부의 차관을 일부 활용할 계획을 발표하며, 노후 철도 시스템 현대화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설정 - 라오까이, 하노이, 하이퐁을 연결하는 391km의 신규 철도는 시속 160km 운행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의회는 지난해 하노이-호찌민시 간 670억 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바 있으며, 이번 철도 사업 역시 인프라 개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전략 중 하나로 평가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상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경제는 2024년 4.4% 성장하여 기존 전망치인 4.0%를 초과 달성하며, 도매무역, 금융·보험, 제조업 부문이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요 교역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으로 인해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0~3.0%로 유지한다고 발표 - 지정학적 갈등과 주요국 간 무역 마찰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생산 비용 상승과 투자 둔화가 싱가포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기후변화사무국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00만~5,000만 톤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을 발표하며, 이는 2023년 7,430만 톤 대비 대폭 감축 목표로 설정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어려움 속에서 청정에너지 수입, 원자력 에너지 도입,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활용을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 - 유엔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모든 국가가 더욱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것을 촉구하며, 2030년대 중반까지 모든 부문에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 B2B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와 캄보디아는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상공회의소 주최 행사에서 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p>하며, 말레이시아 기업들이 캄보디아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기업들은 은행, 통신, 에너지, 호텔, 인프라, 건설, 소매, 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하며, 지난 30년간 캄보디아의 경제 성장과 인재 육성에 기여 - 2024년 1월~10월 양국 간 무역액은 7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5.3% 증가하였으며, 캄보디아의 대말레이시아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 협력이 확대되는 추세
	<p>○ 말레이시아 부총리 중국 딥시크 모델 도입으로 AI 산업 발전 가속화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도입이 AI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특히 중소기업의 AI 활용 확대에 생산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함 - 말레이시아는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술 기업들로부터 14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동남아시아 선도 디지털 경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2024년 10월 개최된 팬퍼시픽 AI 포럼에서 AI 산업 발전과 관련된 법률, 정책, 비즈니스 기회 등이 논의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AI 기반 경제 육성을 적극 추진
	<p>○ 말레이시아, 중앙아시아 팜유 수출 강화 및 신규 시장 개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는 2024년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팜유 및 팜유 제품 5만 4,665톤을 수출하며, 말레이시아팜유위원회는 주요 팜유 공급국으로서 입지 강화 - 파키스탄은 말레이시아 팜유의 10대 수입국 중 하나로 2024년 86만 260톤을 수입하였으며, 말레이시아 농업상품부는 파키스탄 항만청과 협력하여 팜유 유통 확대 논의 - 말레이시아 농업상품부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박람회에 참가하여 팜 바이오매스 폐기물을 활용한 전력 생산 방안을 모색하고, 바이오매스 펠릿 등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추진할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p>○ 인도네시아, 창조경제부 예산 900억 루피아 삭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창조경제부 예산을 기존 2,790억 루피아에서 1,890억 루피아로 30% 삭감하며, 정부 지출 효율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 - 이번 예산 삭감은 2025년 국가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전체 정부 부처 및 기관 지출 감축과 지방 정부 지원금 축소를 포함하는 대규모 재정 조정에 해당 - 정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지출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으며, 창조경제부의 경우 물품 조달 및 기타 운영비 절감 예정
	<p>○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경제 외 분야로 협력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사이버 안보, 해양 안보, 국방 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주요 해상 무역로 보호와 AI 기반 시스템 도입 추진 -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아세안 내 디지털 혁신 및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간 디지털 문해력 증진과 산업 공급망 강화를 추진할 계획 - 말레이시아는 디지털 경제 확대를 위해 아세안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AI 규제 및 사이버 안보법 제정 등을 통한 협력을 확대할 예정
	<p>○ 인도네시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위한 신규 전력공급계획 출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네시아 정부는 기존 전력공급계획(RUPTL)을 대체하는 신규 전력공급계획을 발표하며, 2034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12%에서 35%까지 확대할 계획 - 태양광, 수력, 지열 발전소 건설을 포함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추가 발전 용량 71GW 중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채울 계획 - 석탄 및 가스 발전소 운영은 지속되나,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바 지역을 중심으로 가스 발전 시설도 확충할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필리핀	<p>○ 필리핀과 라트비아, 해양 협력 강화 위한 신규 협정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과 라트비아는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 기준에 대한 국제협약(STCW)을 준수하는 자격증 상호 인정 양해각서(MOU)를 체결 - 협정에 따라 라트비아 해사청은 필리핀 해사산업청이 발급한 자격증을 인정하며, 필리핀 선원의 국제적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 - 이번 협정은 필리핀과 라트비아 간 해양 협력을 강화하고, 필리핀 선원들의 고용 전망을 개선하며, 국제 해양 표준 준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 필리핀, 지방정부 디지털화 가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리핀 정부는 약 70%의 지방정부가 디지털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며, 행정 투명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전자정부 시스템 도입 확대 - 2024년 기준, 741개 지방정부가 전자기업원스톱숍(eBOSS) 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전자조달 시스템(PhilGeps) 등 다양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적용 - 지방정부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며, 우수 행정 인증(SGLG) 획득 기관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
캄보디아	<p>○ 캄보디아와 필리핀, 농업 협력 강화 위한 MoU 체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와 필리핀은 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자 회담을 개최하며, 농산물 무역 확대 및 식량 안보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 - 필리핀은 쌀, 육류, 수산물 등 캄보디아산 농산물 수입을 고려 중이며, 쌀 가공 산업 투자 검토 및 1억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등 농업 무역 협력 확대 - 농업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은 향후 추가 협력 논의를 위해 캄보디아 방문을 계획하며, 민간 부문 간 협력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할 예정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캄보디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한국 투자 유치 위한 전기차 기술 인력 양성 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한국은 전기차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며, 한국의 투자 유치를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임 -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숙련 인력 배출이 전기차 산업 발전과 경제특구 설립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 한국폴리텍대학과 캄보디아 국립폴리텍대학 간 협력이 진행 중이며, KOICA(한국국제협력단) 및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AI 인프라 확장 위해 700억 바트 투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국 방콕 소재 AI 클라우드 기업 시암닷에이아이(Siam AI Cloud)는 2025년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700억 바트(약 3조 원)를 투자 계획 발표 - 태국은 엔비디아(NVIDIA) 슈퍼칩 기술을 도입하고, 데이터센터 확장을 통해 동남아시아 AI 허브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두바이 다막(Damac)과의 협력 추진 - 중국 알리바바 클라우드는 태국 내 두 번째 데이터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 지원을 강화하여 태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정책과 연계할 예정
ASE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과 중국, 협력 강화 의지 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Ningbo에서 열린 제31차 아세안-중국 고위관리회의에서 양측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CSP) 강화를 재확인하며, 역내 협력 확대를 강조 - 아세안과 중국은 무역, 투자, 녹색 경제, 디지털 생태계, 청정 에너지, 식량 안보,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2025년 자유무역협정(FTA) 3.0 업그레이드를 목표로 설정 - 중국은 해양 협력, AI 기술, 환경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아세안과의 협력을 제안하며, 역내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 강조

* 출처: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日本經濟新聞